

NEWS

한일경제협회 소식

■ CONTENTS

협회사업 상반기 개최실적

- 제32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 2013. 2. 19 ▣ 1
-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 2013. 4. 23~4. 25 ▣ 2
-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 2013. 3. 7~3. 8 ▣ 7
- 벅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초청 만찬간담회 ▣ 2013. 3. 28 ▣ 10
- 제9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 2013. 5. 24 ▣ 11
- 협회 & 샌다이경제동우회 & SJC교류 간담회 ▣ 2013. 2. 18 ▣ 13
- 한일경제협회 30년사 발간 14

협회사업 하반기 개최안내

- 제20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 2013. 7. 28~8. 1 ▣ 15
- 제20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2013. 9. 30~10. 2 ▣ 16
-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 ▣ 2013. 10. 1~10. 3 ▣ 17
- 제14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 2013. 11. 20~11. 23 ▣ 18

특집

◇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요 발표자료

-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19
-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개회사 22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前 재무부 장관) 이사장 기조연설 25
- 후쿠다 야스오 前 내각총리대신 기조연설 30
-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前 문화부 장관) 특별강연 35

◇ 제9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주제발표

- 유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43

기획 기사

- 일본우수퇴직기술자 유치 성과 사례 49
 - 세동 파워엠엔씨 51
 - 삼양감속기 53
- 제3국 프로젝트 발굴 조사단(인도네시아, 태국) 53
 - 한일 新 경제협력 시대 ①, ②, ③

한일 통계

- 한일 교역·인적교류 현황 통계 61

신규가입 회원사

62

한일경제협회 소식 제28호

발 행 인 | 조석래
 편집위원장 | 이종운
 편 집 위 원 | 조덕묘·김정호·홍소영
 간 사 | 한수아·서광현
 발 행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8-4(논현동)
 한일재단빌딩 4F
 TEL/ 02-3014-9888
 FAX/ 02-3014-9899

인 쇄 인 | 윤종우
 인 쇄 | 웃고문화사
 서울시 중구 필동 23-1
 TEL/ 02-2267-3956
 FAX/ 02-2268-2361

한일경제협회 제32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 조석래(趙錫來) / (주)효성 회장]의 제32회 정기총회가 2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휘령 세아제강(주) 사장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으로 새로이 선임되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최용권 부회장(삼환기업 회장), 우석형 부회장(신도리코 회장), 김영대 상임이사(대성산업 회장), 윤동한 상임이사(한국콜마 회장), 이수철 상임이사(켄크로스인터내셔널 회장), 이완근 상임이사(신성솔라에너지 회장), 최재호 상임이사(삼남석유화학 사장), 박남숙 감사(교세이국제특허정보대표)가 재선임되었다.

또한, 우리 협회는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 및 경기부진에 대처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경제계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여 불편해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두 나라 사이에 사람과 상품·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확대심화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한일 양국 간에 개최되는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회의인 한일경제인 회의를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고, 양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가까워지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찾아 양국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성황리에 폐막

— ‘하나의 경제권’ 확대·심화를 위한 한일협력 —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1969년 설치 이후 매년 한번씩 양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한일 간의 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제45회째를 맞이하여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2013년 4월 23일~4월 2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97명, 일본 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단장 등 108명 합계 305명의 경제인이 참가하였다.

이번 경제인회의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중

심이 종래의 구미(歐美) 중심에서 아시아로 이행하고 있는 오늘날,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나라로서 다방면에 걸쳐 협력의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양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G20회의에서 채택된 「통화절하 경쟁을 회피한다」는 방침에 따른 양국 정부의 적절한 경제운영을 요망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회의에 앞서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단장 등 일본 측 단장단 8명은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수준높은 한일 FTA/EPA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하였다.

본 회의는 1969년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계속되어 왔으며, 우리 측에서는 역대 최대 인원인 197명이 참가하여(양국 합계 305명) 한일 협력을 바라는 우리 기업의 강한 의욕을 느낄 수 있었다. **KJE**



〈윤병세 외교부장관 예방〉

좌측부터 벅쇼 주한일본대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정홍원 국무총리 예방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방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방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예방



개 회 식 전 경



회 의 장 전 경



(개회인사)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



(개회인사)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내빈축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조연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특별강연)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경과보고) 이수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협회보고)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Reception 입례



Reception 환영사
(김상범 서울시 부시장)



건배 제의하는 양국단장·서울시부시장·후쿠다 前일본총리



(1세션 좌장)
노성태 한화생명 상임고문



(1세션 발표)
김중훈 국회의원



(1세션 발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2세션 발표)
강병구 고려대학교 교수



(2세션 발표)
최창희 (주)노무라종합연구소서울 한국대표



단장단 공동성명 심의회



공동기자회견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요지

1)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이후 1년을 지나면서

- 2012년에는 일본의 대한투자가 45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제3국에서의 한일 양국의 협업(協業) 안전이 증가
- 한일 양국은 작년 후반기부터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지만, 양국 경제인은 굳건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문화·인재 교류 사업들을 모두 당초 예정대로 실행

2)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한일협력

- 유럽국가들의 재정개혁 지연과 미국정부의 예산자동삭감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에서 구미(歐美)의 주도력은 상대적으로 약화
- 양국 경제인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지향적인 제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나아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을 향해 흔들림 없는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바야흐로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갈 예정

3) 양국 신정부에 대한 기대

- 때때로 불안정한 양국의 정치관계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 돈독한 양국 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
-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FTA/EPA의 조속한 체결을 계속해서 강력히 촉구할 예정
- G20회의에서 채택된 「통화약세 경쟁을 회피한다」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양국 정부의 적절한 경제운영을 기대

4)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구체적 시책

- 양국 기업에 의한 부품소재 조달·공급을 한층 더 확대시키고, 對한국 투자 활성화 촉진사업, 한일 기업이 제휴한 R&D 네트워크 구축,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의료분야에서의 협력 등과 같은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
- 한일에 의한 국제표준화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차세대 자동차, 복지·요양보호 분야의 자격인증 등 신산업으로서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한일 표준화 협력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

5) 제3국 공동진출의 확대

- 양국의 제휴에 의한 제3국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원·에너지 등의 확보, 양국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수출을 추진하기로 합의

6)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및 한일문화교류·청소년교류 확대

-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폭넓은 문화교류와 각계각층의 한일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
- 한일고교생교류캠프 등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한일축제 한마당과 같은 풀뿌리교류를 촉진

7) 차기 회의 개최

- 제46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4년 5월 일본에서 개최

* p 19~35 주요 발표자료 참조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지난 2013년 3월 7일(목)~8일(금) 서울 COEX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양측 위원 65명(한국측: 36명, 일본측: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측 대표: 한국무역협회 안현호 상근부회장)

(*일본측 대표: 아소시멘트(주) 아소 유타카 사장)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제언 및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 및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유럽의 시대에서 동아시아 시대로의 구조개편 과정 속에서 세계경제의 안정된 성장축으로써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한일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하나의 경제권’ 형성의 확대·심화를 위해 제3국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기업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표준화 분야의 한일협력을 확산시키자는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좌측부터 이종운 부회장, 이수철 코디네이터, 안현호 চে어맨, 아소 유타카 চে어맨, 다카다 노부아키 코디네이터, 고레나가 카즈오 전무이사〉

한편, 제3국 한일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시간에는 (주)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최창희 한국대표로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일 연계 지원체계 구축」, 한국스미토모상사(주) 고바야시 타다시(小林 中)사장[SJC前이사장]으로부터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프로젝트 및 대흥수 이후의 방콕 근교공업단지 시찰 보고」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한일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협력사례를 공유하며, 한일협력 모델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표준화 협력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의 「한일 표준화협력과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방안」, 노무라 Agriplanning & Advisory 다카다 노부아키(高田 伸朗) 주석컨설턴트의 「국제표준화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한일 협력 연대」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제표준화에 대한 전략적 추진방안과 향후 검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주요 논의 결과

■ 회의성과

1) 미국·유럽의 시대에서 동아시아 시대로의 구조개편 과정 속에서 세계경제의 안정된 성장축으로써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한일협력 방안을 제시

○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한일협력 방안

- 한일 협력에 의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협력에 의한 협력 환경 개선이 필요함
 - * 정부지원전략 방향성 공유, 현지 지원창구의 기능 강화, 한일협력 프로젝트 개발펀드 구축, 민간은행 참여 유도, 기업 진출환경 조성, 공동 미션단 파견
- 자원개발, 서플라이체인, 이 외에도 상대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한일이 함께 추진할 것이 많으며, 향후 이러한 시찰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표준화 분야의 한일협력 방안

- 한일표준협력이 가능한 분야
 - * 한국측 :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신소재, 생명공학, 차세대 자동차, IT 분야
 - * 일본측 : 신에너지, 차세대자동차, 농업·식품, 복지·요양보호 분야
- 협력방향 : R&D 초기단계부터 표준화를 고려한 연구협력을 통한 국제적 파트너십 확보, 공통표준의 제정
- 표준화 협력 시 고려사항
 - * 시장중심의 표준화 : 양국의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표준개발 (연구개발자 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의 표준개발)
 - *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표준이해 당사자들의 소통 원활화 (양국협력의 가장 기본은 신뢰임)

2) ‘하나의 경제권’ 형성의 확대 심화를 위해 제3국에서의 공동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표준화 분야의 한일협력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회의가 됨

- 양국의 제후를 통한 제3국으로의 글로벌 전개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원·에너지 등의 확보 및 인프라 수출 추진 등을 통해서 양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과당경쟁을 피하고 신성장 산업분야에서의 시장 선점을 위해, 한일이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향후 추가보완 과제 및 후속조치 계획

□ 향후 추가보완 과제

1) 제3국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한일협력

- ① 기업의 니즈에 맞는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과 제안을 위한 컨트롤타워(기관)기능 강화
- ② 제3국 공동진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한일 양국 협회/재단 주도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
- ③ 자금 조달을 위한 민간금융 활용 방안 마련
- ④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과 역할
 - 해외 자원개발 국제입찰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
 - 제3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

2) 표준화 분야의 한일협력

- ① 인재(자격증, 기술인증)제도 등의 표준화 추진
- ② 양국 표준이행 당사자(기업)들 간의 협의 기능 강화(기업중심 표준개발 논의)
- ③ 표준화 성공사례 발굴 및 제안(예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표지판 등 보급)
- ④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한일 표준화 협력 방안 모색(예 : 인증마크제 도입 등)
- ⑤ 한일 간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대정부 제안

□ 후속조치

- ' 13. 4월 '하나의 경제권 형성' 확대·심화를 위한 양국 경제협력강화 방안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한일협력과 표준화 분야의 한일협력방안을 추가 보완하여 제45회 한일경제인 회의에 상정하여 논의
 - 지금 당장 양국이 실시하더라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 부분을 찾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제안
- ' 13. 10월 제3국 프로젝트 협력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 ' 14. 3월 제1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벅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초청 만찬간담회

우리 협회 회장단과 주한일본대사관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가 지난 3월 28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협회 회장단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을 비롯하여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김윤(金鈞)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 하영봉(河英鳳) 부회장(LG상사 대표이사 사장) 등 10명이 참석하였고, 주한일본대사관측에서는 벅쇼 고로(別所浩郎) 대사를 비롯한 5명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 간의 협력 분위기 조성과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회 회장단을 대표하여 조석

래 회장은 벅쇼 대사의 한국 부임을 축하하며, 대사부임 이후 한중일 3국에서는 신정부가 출범하였는데 한일관계를 함께 고민하고 경제인들과 힘을 합쳐 양국의 우호증진과 교류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요망하였다.

이에 벅쇼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되어 영광이며 본래 외무성에서 주로 했던 일들은 경제관련 업무였는데 향후 정치문제와 더불어 경제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한일 양국은 운명공동체로 더욱 끈끈하고 활기찬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대한투자, 한류·일류, 선거제도, 에너지협력(원자력, 셰일가스) 등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제9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지난 5월 24일(금), 서울 COEX 컨퍼런스룸 327C호실에서 제9회 회원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는 한일 간 이슈 등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일본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정보 제공, 협회·재단(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협회 자매기관) 회원사, 무역협회 회원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김강희 동화엔텍(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협회·재단 회원사,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 총 46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서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

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p 43 참조)이라는 테마로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또한 아베정부 출범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현상과 최근 일본사회의 행보 등에 대하여 안상우 前 삼성재팬 대표이사 전 무로부터 ‘아베정부 출범 이후 일본사회 동향’이라는 테마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박상철 교수는 “유럽통합은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법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포괄적인 통합을 의미”하며, 유럽이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아울러 박상철 교수는 “동아시아는 공동의 가치관(전 인류적인 가치관)을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통합이 쉽지 않은 것이며, 국가간 통합이라는 것은 지도자들간에 명확한 비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길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안상우 前 대표는 엔저현상에 대해서 한국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본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국기업인들은 이미 노동력, 싼 임금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중국으로 모두 이전된 상황이므로 결국 일본과 경쟁할 수 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엔저로 인해 기업이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일본기업과堂堂하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만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우리 협회는 회원서비스의 일환인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에 저명한 국내외 인사의 강연 및 정보 제공, 협회 사업 안내, 회원사의 요망사항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보다 유익하고 발전성있는 회원사 간담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JE**

협회 & 센다이경제동우회 & SJC교류 간담회

~ 대지진 이후 일본 동북지방과의 경제교류 협력방안 논의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 조석래)는 SJC(서울재팬클럽)와 함께 일본 센다이경제동우회 방한단 멤버와의 교류 간담회를 2월 18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센다이경제동우회(대표간사 : 오오야마 켄타로 (주)아이리스오야마 사장, 이치리키 마사히코 하북신보사 사장) 멤버 16명의 방한은 ‘대지진 부흥에 대한 공헌’과 ‘아시아와의 제휴’를 테마로 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교류 간담회에서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 지역 산업의 상호보완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을 위해 일본 동북지방과도 파트너십을 이루어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일(동북지방)간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의견교환에서, 센다이경제동우회 오오야마 대표간사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을 위한 노력과 한일경제협력’이란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측의 각종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한일경제협력에 대해 소감을 밝히는 한편, 오는 11월 7일 센다이에서 개최하는 「기업박람회」에 한국에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측을 대표하여 광운대학교 이향철 교수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한일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테마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향철 교수는 이 발표를 통해 중층적 복합재해로서의 동일본 대지진을 조명하고 외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서플라이체인 재구축’과 ‘제3국에서의 공동 사업전개’, ‘규모의 경제 추구’ 등 한일경제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한편, SJC(서울재팬클럽)를 대표하여 미야기현국제경제진흥협회 스기와라 서울사무소장은, 미야기현의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동북지역으로의 방문객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일경제협회 30년사 발간

한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힘써 온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 교류의 역사와 협력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을 견고히 하자는 의미를 담아 <한일경제협회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한일경제협회가 있기까지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여 내실있는 한일 간 민간경제협력 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경제협회 30년사 표지〉

제20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안내



우리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확대를 위해 2004년 1월부터 매년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일본 외무성, 국토교통성, 주일한국대사관에 후원하는 금번 제20회 캠프는 2013년 7월 28일(일)부터 8월 1일(목)까지 4박 5일간 일

본 오사카 코스모스퀘어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양국에서 참가한 100명(한국 측 50명, 일본 측 50명)의 고교생들이 혼성 10개 팀으로 구성,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양국의 의료복지·교육·신성장 동력·글로벌 무역 등의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경제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캠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 및 창업교육을 통한 비즈니스 마인드와 창업 정신을 고취시키는 한편, 공동 작업을 통해 국경을 넘어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진정한 우정을 쌓음으로써 향후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한일 청소년들 간의 이해증진을 통해 우호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7월 31일(수)에는 한일 학생들이 공동작업(오사카 시내 시장조사 및 사업전략 기획)을 통해 준비한 기획을 선보이는 ‘사업발표회’가 개최된다.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사업발표회는 회원사, 소속 고등학교, 언론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참관하고 있다. ☎

※ 제8회 한일학생미래회의 개최, 일본 오사카

「2013년 8월 6일(화)~10일(토)」

- 캠프 수료자들로 구성된 OB회로써, 2007년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함. 본 회의는 한일 학생 간의 지속적인 교류심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한일협력’을 테마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20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안내

- 부산광역시 -

2013년 9월 30일(월) 부터 10월 2일(수)까지 '제20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다.

본 회의는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의 지자체·경제단체·기업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쌍방의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의 교류 확대」와 「지역 간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양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회의는 기존의 틀을 바꾸어, '한·일의 미래협력'을 주제로 양국 자동차 산업 협력에 대하여 전문가와 관련 기관·기업이

모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산업 관련 상담회를 병행개최하고, 관련 시설들을 시찰함으로써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하고자 기획하고 있다.

작년 11월,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개최되었던 제19회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 큐슈(九州)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한국기업 12개사, 일본기업 23개사가 참가한 한일 분야별(바이오 식품 분야, 환경·에너지 기계분야 등) 상담회에서는 총58건, 1,126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 제20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3년 9월 30일(월) ~ 10월 2일(수)	
장 소	부산광역시	
규 모	한일 양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 등 80여명	
주 최	한국 : 지식경제부, 일본 :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주 관	한국 : 한일경제협회, 일본 :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주요내용	제20회 회의	- 한일 양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소개 - 자동차산업 및 그 연관산업(기계·공구, 조립·가공, 금형, 튜닝 부품 등) 관계의 전문가, 정부 또는 지자체, 관계 기관 및 경제 단체, 기업 등의 참가자로 회의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구성
	상담회	- 한일 양국에서 상호 부품조달과 공급에 관심이 많은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 자동차 연관 산업 기업을 초청, 사전 매칭을 통한 상담회 실시
	산업시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소개 -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물류 관리체계 소개 - 글로벌 경쟁력이 검증된 우수 자동차부품기업 공장 등 시찰

■ 주요일정

날 짜	주요 활동 사항
9/30 (월)	일본측 입국, 산업시찰 개최지 주최 만찬교류회(부산)
10/1 (화)	제20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 '미래지향의 한·일 협력' 일본측 주최 오찬교류회 기업 상담회(자동차) 한국측 주최 만찬교류회
10/2 (수)	산업시찰 일본측 단원 귀국

※ 참가문의 : 홍소영 대리 02-3014-9881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 (자동차부품산업)

- 서울특별시 -

2013년 10월 1일(화) 부터 10월 3일(목)까지 '2013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자동차부품산업)'가 서울 롯데 호텔에서 개최된다.

본 교류회는 한일 양국의 동일 업종 기업 간 교류협력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상호보완적 경제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무역·투자·산업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류회는 작년에 이어 자동차산업을 다루게 되며, 일본 완성차업체인 미쓰비시자

동차와의 상담회를 통해 비즈니스 찬스를 확대하고, 세미나 및 산업시찰, 간담회 등의 개최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된다.

작년 11월 일본 나고야지역에서 개최된 '2012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에서는 한국기업 23개사와 일본 미쓰비시자동차 및 협력업체 1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부품 수출 및 기술제휴관련 상담을 실시하여, 총 45건, 62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

일 시	2013년 10월 1일(화) ~ 10월 3일(목)	
장 소	서울특별시 롯데호텔(소공동)	
규 모	미쓰비시자동차+한국 자동차부품기업 등 약 50명	
주 최	(사)한일경제협회, 자동차부품연구원	
주요내용	상담회	- 양국 기업간 Global Sourcing 및 기술 이전·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상담회 개최
	세미나	- 한일 자동차산업협력 세미나(네트워크 구축)
	만찬간담회	- 무역·투자·기술협력 등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관심분야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및 비즈니스 관련 상담
	산업시찰	-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견학

주요일정

날 짜	주요 활동 사항
10/1 (화)	일본 완성차업체 입국(일본→한국) 한국 우수 자동차부품생산기업 견학
10/2 (수)	상담회(미쓰비시-한국 부품업체) 한일 자동차산업협력 세미나 및 만찬간담회
10/3 (목)	문화시설 견학 일본 완성차업체 출국(한국→일본)

※ 참가문의 : 홍소영 대리 02-3014-9881

제14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안내

- 대구광역시 -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울산·강원·경북)와 일본 호쿠리쿠 지역(토야마[富山]·이시카와[石川]·후쿠이[福井])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4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2013년 11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된다.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와 산업 협력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양국이 교차 개최하고 있는 본회의에서는 대구의 기계산업대전과 연계하여 회의 테마를 설정하고 산업시찰 및 상담회를 실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회의로 기획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 기업의 발전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교류확대 및 강화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 제14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 23일(토)	
장 소	대구광역시	
규 모	약 80명	
주요내용	전체회의	- 경제정책 및 지역발전방안 논의
	전문분과회	- 기계관련 기업, 단체, 대학, 지자체 담당자 등이 모여 기계관련 정책, 기계업 중간 발전·교류방안 등 논의 - 의약바이오, 의료기기, 의료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방안 논의
	전시상담회	-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대구국제로봇산업전

▣ 주요일정

날짜	주요 활동 사항
11/20 (수)	일본측 입국 및 산업시찰 개최지 주최 만찬교류회
11/21 (목)	전체회의: 미래지향의 한·일(호쿠리쿠) 협력
	전문분과회: 기계·로봇분야 협력 / 의료융복합분야 협력
	한일 공동 오찬교류회 상담회·시찰
11/22 (금)	일본측 단원 귀국 / 옵션 프로그램
11/23 (토)	일본측 옵션프로그램 참가자 귀국

※ 참가문의 : 홍소영 대리 02-3014-9881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개회사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조 석 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한일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에 한일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을 모시고 제45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와주신 사사키 미키오(일한경제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한국 대표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과 타이라 마사아키 일본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후쿠다 전 총리께서는 올해 세 번째 한국을 방문하실 정도로 한일 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한일경제협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가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와 셰일가스 개발로 활기를 띠어, 주택 가격과 주가가 많이 오르는 등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 왔던 중국마저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1/4분기 국내총생산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일에는 쓰촨성에 지진이 발생해 중국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감한 양적 완화를 통해 오랫동안 계속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가 절하되어 수출이 늘어나고 주가가 많이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등 일본경제 회복에 대한 뉴스가 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한국 경제인들

도 일본의 경제회복이 세계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시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은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해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있으며, 투자마저 부진한 상황이라 올해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한일 양국 경제가 이처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북한은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며 한반도에 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시아는 여태까지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지금 북한의 행태는 동북아시아의 발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인들은 대화와 협력으로 그동안 이룬 경제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남북한의 분단에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모두가 책임이 있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문제는 이들 국가에게도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한국과 공조하여 북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때

때로 역사 및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서로 대화하고 이해함으로써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세계경제가 어려워질 때일수록 우리 두 나라는 더욱 굳건한 경제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FTA를 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일간에 FTA 협상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인데, 그동안 우리 양 협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보면,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폭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일본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농수산물 시장을 상당 수준 개방해야 할 것이므로 한일FTA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일FTA를 적극 추진하여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여러 나라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FTA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작년 3월에 미국과 FTA를 발효하였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는 늘었고, 우려했던 농업의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한일 경제인 여러분, 오늘 후쿠다 전 총리님과 사공일 이사장님께서 기조연설을 맡아주셨는데, 양국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막 벗어나려는 현 시점에서 양국의 협력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훈 의원님께서도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해주실 텐데, 한미FTA의 교섭당사자이셨던 만큼 FTA를 추진함에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양국간 협력에 도움이 되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일 양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바라며, 2015년 한일국교 정상화 50

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경제인들이 함께 노력하여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한층 더 쌓아 나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한일 경제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측 개회사

(일사)일한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님,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및 한국측 단원 여러분, 그리고 제91대 내각총리대신 후쿠다 야스오 선생님, 타이라 마사아키 경제산업대신정무관님 및 일본측 단원 여러분, 일한경제협회 회장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사사키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많이 참석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일본측을 대표해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월 25일에 실시된 대통령님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향후 한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선언 하셨습니다만, 대통령님의 강력하고 명쾌한 메시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만찬회에서 직접 대통령께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예도 입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작년 12월에 제2차 아베내각이 탄생하였고, 아베 총리는 2월 28일 국회에서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박근혜 신임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21세기에 걸 맞는 미래 지향의 중요한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여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정권의 긴밀한 연대 속에서, 양국이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우호관계를 확대해 갈 것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의 선두에서 양국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생각입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4년 후인 1969년에 제1회 회의가 개최되어 올해로 45회째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되어 온 것은 오로지 선배 관계자 여러분이 진력해 주신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오늘 한일의 새로운 정권하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번 회의의 주제와 관련된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다루어 온 테마인 「하나의 경제권 형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이 보다 견고한 협력관계를 확립해 가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강력히 서포트하는 것으로서 「한일 양국의 EPA/FTA의 조기체결」이 불가결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려분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 금번 회의에서도 양국 정부에 대하여 조속한 실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한중일 3개국에 의한 FTA교섭이 개시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만, 이와 함께 민주주의, 자유주의 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한일 양국에 의한, 보다 높은 수준의 EPA/FTA의 실현은 양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지극히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한일 양국의 제3국에 있어서의 협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양국이 협력하여 제3국에서 금속, 에너지 자원의 개발, 확보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제44회 회의에서도 확인되었고,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의 창조로 연결하기 위해서 양국의 경제인에 의한 제3국 현장시찰 미션의 파견도 합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금년 1월에 한일 총 40명의 경제인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일본의 미쓰비시상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시찰하고, 태국에서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현지 진출 기업의 서플라이체인인 복구 상황을 시찰하였습니다. 미션 참가자로부터는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매우 어려운 사업환경이지만, 한일이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서로 보완해 감으로써 어려운 사업도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 큰 참고가 되었다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현장시찰 미션의 파견을 계속할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자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수출 등의 관점에서 방문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도네시아/태국 방문 시 재일본 한국대사관 및 일본국 외무성으로부터도 참가해 주셔서 민관합동 미션의 형태가 되었던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협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일 청소년 교류입니다. 한일 양국의 향후 50년의 주역은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의 협력으로 지속되어 온 한일고교생교류캠프도 금년에 20회째가 되며 7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은 약 1800명에 달하며, 이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 되서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어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의 우호확대에 훌륭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의 기술계 대학생이 한일 양국의 기업,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전수받는, 보다 높은 수준의 연수프로그램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육성, 교류 사업에 대해 양국 정부의 가일층의 이해와 자금 면에서의 서포트 등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의 아소 চে어맨, 한일경제협회, 규슈경제 산업국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작년 11월 및 금년 2월에 규슈에서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료·개호를 주요 테마로 하는 한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문제는 간호·개호의 공동연구, 자격인증 공통화 등, 내일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표준화 논의와도 깊

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 입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수준에서의 한일축제 한마당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한일 양국의 정치 면에 있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만, 특히 안전 면에서 축제의 실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 일수록 이러한 풀뿌리 교류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관계자 여러분의 열의와 강한 결속력으로 예정대로 축제를 실시하여 서울, 동경에서 모두 대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9월부터 10월에 걸쳐 한일 양측에서 축제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만, 저도 일본측 실행위원장으로서는 양국 시민간의 교류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력하나마 전

력을 다할 생각 입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2년 후인 2015년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일 양국의 우호확대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양국이 중심이 되어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등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가 적어도 그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의 2일간의 회의가 양국 경제인에 의한 미래 지향의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의미있는 회의가 되도록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한국측 기조연설〉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 전 재무부 장관
사 공 일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주신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오신 사사키 미키오 일한협회 회장님과 경제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과 함께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위해 방한하신 후쿠다 야스오 전 내각총리대신께 특별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한·일 양국에서 이제 막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양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은 물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이고 성숙된 한일협력 체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양국 정부의 공통 과제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양국 경제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논의를 펼치게 될 이번 한일경제인회의는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미리 예정되어 있던 한일외교장관회의마저 취소되는 등 정부 차원의 양국 관계가 크게 경직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양국

경제계 지도자들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해 모인 이 회의는 더욱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인구 1,100만, 그리고 EU 전체 GDP의 2%에도 못 미치는 그리스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인구 80만의 조그만 섬나라 Cyprus의 국내경제 문제마저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관련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조그마한 마을화 되었고 세계경제 전체가 깊은 통합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 어느 한 나라나 지역도 독자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지구촌 전체 차원의 국제공조와 함께 지역 차원의 긴밀한 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다극화(multi-polar)라기보다 무극화(no polar) 혹은 G-Zero적 상황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촌 전체 차원의 협력과 정책공조에 관한 중지를 모으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특히 자유무역의 창달과 세계 금융의 안정을 이룩하는 일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자유진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uni-polar)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국이 중심이 되어 소위 GATT Bretton Woods 체제가 만들어졌고, 세계경제가 필요로 했던 자유무역과 금융 안정이라는 글로벌 공공재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냉전체제 하에 있었던 당시의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간 전후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을 가장 잘 활용해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두 나라는 글로벌 공공재의 충분한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경제 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면 2001년에 시작된 WTO 체제 하의 DDA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탈냉전 시대를 맞은 세계가 무극화 상황 하에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웃 간 혹은 지역 차원의 협력, 즉 쌍무주의 혹은 지역주의는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습니

다. 지구촌 전체 차원의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갭이 지역 차원에서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일 두 나라와 중국이 포함된 동북아시아에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까지 한·중·일 3국 경제는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의 노력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 없이 오로지 시장 기능에 의해 상당 수준의 통합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와 무역 규모, 재정과 금융 그리고 외환보유고 등 모든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세계경제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 양국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은 비단 양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위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20 재무장관회의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의 Lehman Brothers 파산 직후부터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 G20은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19개국과 유럽연합(EU)이 집단적으로 발휘해 보자는 목적에서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8년 출범 이후 세계는 G20을 중심으로 긴밀한 거시경제 공조와 보호무역주의 자제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2007/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가 1930년대의 국제공조 실패에서 얻은 뼈저린 교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G20을 통한 적절한 리더십 발휘가 불확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어느 나라도 앞장서서 G20 체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세계 여건 속에서 한·일 양국이 우리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번영과 지속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공동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촌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리더십이 G20을 통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 준비과정에 비추어볼 때, 우리 두 나라가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는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두 나라는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지역 차원의 각종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추세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중국과 함께 ASEAN+3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금융협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체 차원의 지역협력에 한·중·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 나라가 반성해야 할 것은 ASEAN+3 총GDP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세 나라가 ASEAN이란 “우산”없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중·일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ASEAN+3 정상회담 기

간 중에 3국 정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3국 정상만이 독자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인 2008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년 초부터 3국간 FTA 협상도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시작된 우리 양국 간 FTA 협상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란 목표를 향한 여러 제안들이 실물과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협력 기반이 미흡하여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양국 기업과 경제계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의 기초가 되는 양국 국민 상호신뢰 기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양국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 신뢰기반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양국 국민 간의 신뢰기반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양국 국민이 이 지역의 불행했던 과거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시각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부정적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양 국민들 간의 상호 신뢰 기반이 튼튼해질 수 없으며, 그 결과 양국 간의 협력 체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양국 국민 간 상호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양국 국민의

상호 부정적 정서를 자극하는 일부터 자제하는 일입니다. 특히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사에 매몰되게 하여 미래지향적인 신뢰기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일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국 기업과 경제계 지도층은 모든 경로를 통해 정치지도자들이 양국민의 신뢰관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양국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전쟁과 상호 파괴적 역사적 유산을 가졌던 유럽의 주요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함께 협력하여 상호신뢰 기반을 구축한 경험에서 유용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 두 나라의 모습이 너무 편협하고 왜소하게 비치지 않도록 우리 지도층부터 솔선수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현재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상호신뢰 기반이 최근 들어 크게 약화되고 있어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2010-11년의 63퍼센트 수준에서 현재 39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느 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또한 2008년의 정점에서 현재에는 30퍼센트 수준으로 낮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한국 언론매체 여론조사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이란 측면에서 현 일본 아베내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6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시각은 거의 80퍼센트가 부정적이며,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수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진 30퍼센트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최근 양 국민 간의 상

호신뢰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은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사려 깊지 못한 인기영합적 언행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양국 국민 간의 상호신뢰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양국 기업과 경제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양국 경제계는 양국과 이 지역 전체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상호 win-win할 수 있는 positive-sum적인 공동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참여하는 동북아지역의 positive-sum적인 사업으로서 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사업 개발과 한일 간의 공동 자원 및 에너지 개발과 비축, 제3국의 인프라 건설 공동 참여 등 많은 분야의 사업을 적극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분야에서 많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대대적 교육 교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양국 주요 대학 간 공동 학점 인정 등 제도적 차원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청년을 일본에 초청하는 “제네시스 2.0”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아베 총리께서 “문화의 교류, 사람의 교류, 젊은이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만들어가고 싶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은 높이 치하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이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국의 입장을 반추해보는 일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논의될 양국 간 FTA 등 구체적인 지역차원의 제도

적 협력 방안과 함께 산업과 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협력은 우리 양국이 새로운 **global standard**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금융 측면에서도 3국간 통화스왑제도의 확대 운영,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을 아시아 지역 차원의 통화기금(**monetary facility**)으로 만들어나가는 데도 양국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 분야 공동연구·훈련기구를 창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아주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무극화 시대의 불안한 세계경제 질서 혹은 무질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빠른 기술변화에 따라 세계

는 나날이 더욱 깊은 통합 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수많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함께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두 나라의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한·일 경제계와 양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무척 뜻 깊은 일이라고 봅니다. 모쪼록 이 시의적절한 회의가 새롭게 펼쳐지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회의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일본측 기조연설〉

『현재의 경제정세와 한일협력』

전 내각총리대신(제91대)
후쿠다 야스오(福田 康夫)



먼저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석래 회장님과는 오래 전부터 여러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은 최근 들어 종종 뵈고 있습니다만, 늘 진지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앞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회의는 벌써 45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단 한 번도 중단되는 일 없이 계속해 왔다는 점은, 여기 계신 회장님 뿐만 아니라 양국 협회의 노력 또는 열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때로는 별로 개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음에도 계속 개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본과 한국 양국은 새로운 수장이 취

임을 하게 되었고 같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양국의 리더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도 정책 발표내용에 있어서 여성의 활용과 지위 향상을 신정책의 큰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을 앞서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일본도 더 노력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긴장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국경에서 서울까지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만큼 이 문제를 더욱 크게 느낄 것이고 만전의 대응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

세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일겁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결과, 미사일 납치의 해결을 조건으로 핵개발을 하지 않고 일본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평양선언입니다. 그 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납치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미사일 발사, 핵개발을 더욱 더 진행시키는 등 매우 비우호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원을 약속한 평양선언은 왜 하였을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엔결의를 위배하고 경제제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들이 단호하게 의견을 모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을 방문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특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중일은 충분한 연락을 서로 함으로써 북한에 결코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10년 전 이라크의 독재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북한이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결코 강변 일변도로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화에 응하고 태도를 바꾼다면, 그 후의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일본의 아베 총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빨리 평화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경제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장관님

의 언급이 있었습지만, 최근 국제경제와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베노믹스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 타겟과 금융완화 방침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이 같은 경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변국가에 어려움을 주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 열렸던 G20 경제관계자회의에서 현재의 환율(엔화 약세)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대책을 위한 금융완화라는 점, 일본의 경기대책으로서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며 일본의 경기회복은 국제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 일본은 방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 꾸준히 실행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베노믹스를 실행해 나간다면 이 아베노믹스가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금융조치와 성장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그리고 규제개혁을 비롯한 성장전략입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일본경제는 발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의 협력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성장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한국경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win-win의 관계가 구축될 것이며,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간 한일간의 협력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EPA협상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총리였을 때 실무자 협의를 하자고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지지부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와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2012년은 일본이 한국에 최대 규모로 대형투자를 실행하였고, 또한 투자대상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에 부품소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간 교류사업도 2008년 이후에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및 부품소재분야의 산업간 교류인 역견본시가 4년 연속해서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당국간의 대화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환경분야와 관련해서도 한일 그린파트너십라운드테이블을 실시해 매우 다각적인 측면에서 각 기업의 관계자들이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과제에 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전세계에서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자원과 에너지를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워 해외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개발을 공동으로 협조해 한다거나 또는 수송할 때 협조한다거나 또는 정제, 생산단계에서 협조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집중 문제입니다. 일본은 오사카, 나고야의 문제가 되지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동경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대도시 집중을 과연 방지해도 좋은 것인지, 그리고

동경에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고령화가 된다는 것, 앞으로 20년 후에는 동경도 맹렬한 기세로 고령자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공통의 과제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도시가 인구가 부족해지는 과소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부 도시로 집중해 버립니다. 일본 대기업의 대부분이, 10억엔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체의 60%가 동경권에 본사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도 같은 비율로 동경으로 집중됩니다. 지방은 사람들도 없고 자금도 전부 도시로 가는 상황이 양국 모두에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진전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과 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고령자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동경과 서울에 만약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기능 자체가 크게 멈추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도 감안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재해에 강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라는 고민을 함께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협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간에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조금 더 규모가 큰 문제는 역시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동해를 평화로운 해양지구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만일 동해가 평화로운 지대가 된다면 동해를 중심으로 선박왕래, 주변지역에서는 생산거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적교류도 더욱 늘어날 것이며 전혀 다른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있

기 때문에 그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한일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국가도 그 지역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경제권이 구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국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는 갈등의 요소, 웅여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역사인식의 문제, 교과서, 독도, 야스구니 참배문제 등 감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내셔널리즘으로 진전되고 있고 또 국민 간에도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논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즉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 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대립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와 외교당국이 서로 협의를 거듭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외교당국이 협의를 안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상들간의 논의와 대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와 외교당국이 정상회담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것이 때로는 잘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

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의 진정한 양국관계는 성숙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공일 이사장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같은 바입니다. 외교당국은 대화를 통해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철저한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국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영향을 주고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호 win-win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양국간 교류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만, 이는 서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국은 GDP를 합해서 10%를 차지하는 큰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현재의 한국은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국이 아시아의 리더국가로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회의에서도 채택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바이며, 이것을 지탱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책임을 다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준높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성숙되고 그리고 세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일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중국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 생각합니다. 지난 달에 한국 서울에서 세계리더십포럼이 열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아시아포럼이 중국에서 개최되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달 5월에는 중동에서 다른 형태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한국

에서도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대표로 참석하시는 등 한중일 3국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3국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특별강연〉

『유라시아 속의 한일문화교류』

중앙일보 고문/전 문화부 장관
이 어 령



먼저 영광스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세아도 아니고 넓은 유라시아 속에서의 한국과 일본을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뜻깊고 저 본인에게도 자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동시통역, 잘 아시다시피 나라와 나라의 말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자는 배신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간해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된 차트의 영상을 보면서 말은 한국어로 시각은 일본어로 하는 공평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에 근거가 되는 땅,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와 이민을 갈 수도 있지만, 국토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이것은 개화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도 지구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개화 이전(명치유신)에 가장 새롭게 일본사람이 그린 「세계만국사대해」 즉, 바다가 4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대서양, 소서양,

대동양, 소동양 이렇게 해서 3개는 큰 바다가 동양과 서양으로 있고 그 중에 소서양, 소동양이 있다고 해 동양과 서양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지도를 그렸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대일본이라고 해 일본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을 굉장히 크게 본 것입니다. 전국시대에 지구의가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본의 위치를 묻자 오다 노부나가가 유라시아 대륙을 가리키면서 이 곳이 우리나라인가?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만큼 굉장히 큰 나라인 줄 알았다가 전세계 속의 작은 일본에 대한 실망감으로부터 세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아시아속의 한중일이 아니라 더 넓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유라시아 대륙의 시각에서 3나라를 보면서 모든 문화, 경제 등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하는 것을 정리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훨씬 후에 한국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몽골사람들이 그린 것과 오리엔트에서 그린 2개의 세계지도를 합성해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라는 세계최초의 그림입니다. 원본은 일본의 어떤 대학에 있는데, 「혼일」이란 말은 몽골사람들이 세계 제국을 만들었을 때의 세계를 오늘날 말하는 소위 유니버셜한 것, 글로벌한 것을 혼일이라 하였고, 그 때 이 지도를 그린 것을 보면 유라시아가 중심이 되었던 하나의 유라시아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유라시아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세아의 구별없이 하나의 혼일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지도 속에 모여진 아주 의미 있는 지도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1402년, 15세기초에 그려진 그림인데, 대항해시대와 맞먹는 시대에 이와 같은 세계지도로 이미 몽골을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몽골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양, 동양이 없는 유라시아가 하나의 대륙이라고 하는 산 증거로서 이 지도를 가져온 것이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훨씬 더 남쪽에 아주 작은 나라로 인식되어 유라시아에 일본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세계를 생각할 때는 큰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제일 끝 동쪽에 일본이 있고, 서쪽에 영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황에서 나라 바라보았을 때, 15세기의 몇 백년 전의 지도가 우리들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유라시아속의 시기가 우리에게겐 없었다? 일본은 유라시아에 속하는가? 유라시아 밖에 있는가? 한국은 유라시아 속에만 들어가 있는가? 대륙과 해양의 문제, 유라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위치와 한국의 위치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는가를 간단히 지도 몇 장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현재 유라시아라는 말은 참 듣기 어려운 말

인데 일본 인터넷을 보면 이런 문구가 떠 있습니다. 「유라시아대륙 횡단 자전거 2만km의 여행」.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것이 서서히 전에 없던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라시아를 자전거로 가는데 있어 보통 몇 km만 가도 자전거가 부서집니다만, 일본에만 유라시아를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전거를 만드는 나라 그것이 미래의 나라입니다. 실제 하든 하지 않든지간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다는 의식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싹트고 있고, 이러한 포스터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유라시아의 풍경들이 오늘날 새로운 하나의 의식지대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의 정치가나 경제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화문명에 있어서의 인위적인 구획이 아닙니다. 나비들의 분포도, 생태를 조사해 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분할된 대륙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한국, 일본, 유라시아 전체가 한 나비권에 들어갑니다. 신북구, 신열대구, 오스트레일리아구, 동양구, 아프리카구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낸 대륙의식이 아니라 나비들의 생태를 쫓아서 그려봐도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태계에서도 하나의 유닛을 이루고 있다는 놀라운 생물지리구가 그대로 문화, 정치지리구와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천년 이천년이 가도, 유라시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 갖는 자연생태적 조건도 정치, 경제가 아무리 바뀔다 해도 인간의 문화와 상관없는 나비들이 만들어 내는 이 지리구가, 바로 우리가 유라시아에서 살고 있다는 자연인,

문화인이 아닌 자연으로서의 나와 문화로서의 나는 유라시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리구는 유라시아에서 살고 있다는 자연의식, 문화의식을 함께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이 유라시아대륙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행히도 한중일 3나라의 사람들은 유라시아 대륙의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라시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소위 생명권의 한 지역임에도 나는 유라시아 대륙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진 유라시아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를 한 유닛으로 보고 그곳에서 사는 인간들은 미 대륙이나 아프리카대륙이나 다른 오세아니아의 대륙과 어떤 자연적, 역사적 조건속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느냐 하는 새로운 화두를 보자는 것입니다. 유라시아라는 말이 생기고 유라시아가 구체적으로 전 세계의 하나의 유닛을 이룬 것은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몽고별판의 중앙아시아의 징기스칸이 처음으로 유라시아가 하나의 대륙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인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징기스칸이나 몽골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도를 펴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구를 지탱했던 하트랜드 즉, 지구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불과 몇 백년 전만 들어가도 이 징기스칸의 판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19년, 1223년, 1227년, 1237년, 1259년 역사상 몽골반점이 있는 한 종족이,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제국으로 만든 최초의 글로벌한 세계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기스칸이 사실상 유라시아대륙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알렉산더 대왕보다

도 훨씬 더 많은 유라시아권이 아닌 세계라고 하는 제국을 만든 사람이지만,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 징기스칸이 무엇을 했는지, 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의 잊혀진 이 화두가 한 일 여러분들의 새로운 문화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얼마나 문혀진 자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짧은 시간이지만 땀박질로 살펴보기 위해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유라시아를 최초의 무대로 만들어진 대륙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에 대동아정책을 감행한 백그라운드가 일본의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또는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의 제국주의 사상만이 아닌 그 뒤에는 엄청난 유라시아라고 하는 대륙지정학이 뒷받침되어 침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치유신 이후 일본인들의 정치, 경제를 지배한 가장 백그라운드가 된 것이 유라시아라는 말과 대륙지정학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주창한 사람이 지정학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랏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는 유기체적 조직이다. 살아 있는 국가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따라서 영토도 커져야 된다」는 즉, 「레벤스raum(생존권)」이라는 말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식민지도 만들고 통합된 하나의 큰 블록내셔널리즘도 만들도록 최초의 길을 터준 것이 정치가나 경제인이 아니라, 지정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극의 역사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지구통합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대륙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운명, 한국의 운명, 중국 등 전세계의 운명을 갈라지게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랏첼의 뒤를 이은 것이 켈렌입니다. 생존의 형태로서의 국가,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제교통의 중요한 루트와 관련해서 대륙의 중심과 주변을 구별하는 것을 월러스테인이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산업주의가 성숙하면 주변에서부터 산업예비군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산업국가라는 건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산업국가라는 것은 항상 중심과 주변이 있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러스테인이 얘기하는 세계시스템입니다. 일본이 그랬고 한국도 성숙화에 따라 역시 중심이 되면 한국의 주변국가가 있어야 되고, 일본의 주변국가도 있어야 하고, 중국이 더 커지면 주변국가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국가는 항상 중심과 주변, 강국과 소국의 관계가 생기고 거기에 완충국가로서의 소국의 역할이 나오고 대국은 팽창주의로 가는 등 지리적인 여러가지의 변동을 현실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국가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을 지배하지 않으면 국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경제자족은 무역이 아니라 경제자족론으로서 「아우타르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식민지를 만들고 수탈하고 중심 주변에 강국, 약소국으로서의 눈물도 흘리고 박수도 터져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하는 자원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론들이 과거 19세기-20세기의 역사, 우리의 생존시대인 한 세대에 아직도 아우타르키란 말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자급자족하려면 자원을 지배해야 하니까 그것이 정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이 살기위해 아우타르키 이론에 의해 침략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세계 2차대전을 만들어 낸 큰 이유

가 되는데, 독일의 하우스호퍼라는 사람이 소위 「생존권 경쟁」이라는 이론을 주창하였다. 이 하우스호퍼는 주일 독일대사관 무관으로 있으면서 러일전쟁, 한일병합 등의 정세를 보면서 유럽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 소위 「통합지역」이라는 한 지역, 블록, 하나의 로컬, 권역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통합해 독일이 지배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범미국통합지역, 러시아가 지배하는 범러시아통합지역, 일본이 지배하는 범아세아 통합지역으로 분할됩니다. 이것은 세계의 안정된 발전에 있어 생존권 경쟁을 서로 형성할 수 있는 통합지역으로 가야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으로는 생존권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며, 하우스호퍼는 하나의 권역주의를 최초로 지정학에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이론은 결국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 소련 침공, 일본의 만주 침공,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가져 온 것입니다. 이것이 2차대전 후 독일 지정학이 비판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사상을 뒷받침했던 지정학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살아 있는가 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의식을 오늘날에는 아무도 손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후 매킨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랜드파워」(대륙세력)와 「씨파워」(해양세력)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오다 노부나가 같은 사람은 해군을 중요시해 해양국가적인 씨파워 쪽이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사람은 전부 랜드파워였습니다. 일본은 끝없는 육군과 해군과의 싸움이었는데, 개화기때는 사카모토 료마 같은 해양파들이 바다를 보면서 임자없는 바다로 나가려고 했지만, 이후에는 육군쪽이 강해지면서 한국과 중국으로 가는 생명선이라고 해

서 바다를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랜드파워와 씨파워속에서 우리들은 무역, 정치, 문화교류 등을 하고 있는 큰 흐름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트랜드」와 「림랜드」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데, 러시아, 몽골쪽을 지배했던 하트랜드(중심국가)가 유라시아에 있고 그 주변에 림랜드(주변국가)가 있어 하나의 세계라는 것은 대륙이 아니라 큰 섬이고 그 섬 중에 유라시아가 지구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섬이라고 보는 등 소위 세계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에밀살크라는 사람이 결국은 일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의 영향을 받은 고토 신페이가 같은 사람은 친구 양대륙 대치론을 말합니다. 고토 신페이가 대만의 민생 장관으로 있을 때 에밀살크의 「아메리카합중국과 독일이 관련한 제민족의 경쟁」이라는 1905년에 나온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유라시아대륙에 일본이 들어가 일본, 독일, 이태리, 소련의 거대한 구대륙과 미국이 싸우는 친구 양대륙으로 모든 역사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친구 양대륙 대치론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족 대 민족, 한 국가의 정치가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토 신페이나 에밀 살크 등의 사람들에 의해 학문이나 문명론속에서 줄기차게 문화론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에서 유라시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스पा이크만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전 얘기한 림랜드(주변국가)와 컨테인먼트(봉쇄)라는 말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만들어 낸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계라는 섬에서 고립된 섬의 일부가 미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의 섬으로 본 것입니다. 그

래서 유라시아라는 큰 섬에서 항상 위협을 받는 림랜드의 이론을 가지고, 이 위협을 막으려면 림랜드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트랜드의 주변지대인 씨파워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 즉, 랜드파워와 씨파워가 접촉하는 지역에 림랜드라는 개념을 두고, 미국이 이 림랜드 지대의 나라를 확보해야만 세계섬인 랜드파워를 봉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스पा이크만의 전략이고 지금도 이것은 하나의 지정학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지정학으로 보았을 때 내 국가, 네 국가가 아니라 구대륙과 신대륙 또는 랜드파워와 씨파워의 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그 누구도 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역적인 문제, 한 나라의 문제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큰 문화론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해양기지나 항구들을 이어가 보면 중국의 목걸이가 됩니다. 바다로 뻗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륙국가와 씨파워와의 균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련에서 건조된 폐선을 사들이고 완전히 뜯어고쳐 작년 11월 초음속 비행기의 발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항공모함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스पा이크만식으로 봉쇄하려는 지정학적인 큰 움직임은, 인간의 힘이라기보다 지정학이라고 하는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끝없이 씨파워와 랜드파워가 부딪치게 되는 본능적인 하나의 문화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미국도 일본 한국으로 해서 이렇게 쭉 봉쇄하고 있어 결국 해양세

력도 끊임없이 대륙을 봉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쇄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의 가장 지정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쇄전략과 봉쇄의 그 목걸이를 끊으려고 하는 이 두 세력이 충돌했을 때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20세기에 보았던 극단의 시대에 씨파워와 랜드파워의 충돌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항상 역사적인 사건은 하트랜드인 유라시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대전도 모두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어나 하트랜드라는 구대륙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 신대륙인 미국과 해양세력들이 300여년동안 패권을 이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선택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떠나 봉쇄해야 살아갈 수 있는 해양세력과 바다로 나가 패권을 쥐지 않으면 안되는 대륙세력의 충돌, 즉 누가 중심국가이고 주변국가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생존권 국가형태는 생물과 같아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론들이 다시 현실화되어 한중일 관계가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판도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일본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았을 때 선택지는 2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이신 것은 어느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아시아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이 평화와 번영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귀중한 선택문제 때문에 모이신 것입니다. 무역의 갈등, 엔화약세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기업인, 리더로서 세계의 큰 변화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화산대, 또는 지진대처럼 정치지리학, 문화지

리학, 경제지리학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의 한계로는 어쩔 수 없는, 지구라는 육지와 바다라고 하는 이것들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오래 묵은 이 과제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개의 선택지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오늘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큰 것이 이더(either-or)화냐 보스앤드(both and)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양문화는 이항대립이기 때문에 비트 1과 0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모든 의미가 차이에서 생깁니다. 즉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이항대립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로그의 세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과 0으로 차이를 만들 수 없는 언덕같이 하나의 완만한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토피적인 아나로그 세계와 디지털적인 비트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서양이 주로 이항대립적인 것이라면 동양에서는 애매한 연속체로 딱딱 끊을 수 없는 소위 분절되지 않는 세계이며, 그 사이에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과 아나로그를 합친 디지털로 세계입니다. 디지털이나 아나로그나(either-or)가 아니라 디지털과 아나로그를 융합시킬 수 있는 보스앤드(both and)의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either-or가 아니고 both and한 사람입니다. 다른 벤처기업들이 디지털을 할 때에 「Stay hungry, stay foolish」를 외쳤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방향은 아나로그와 디지털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모바일을 통해 인간들과 기계사이에 있는 150여년 묵은 키보드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키보를 떼고 패드

를 만든 결과, 예를 들면 환자와 의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된 것입니다. 노트북의 키보드 하나 떼어가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디지털 혁명, 소프트웨어 등등을 얘기하는데, 아나로그와 디지털을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는가를 처음으로 전자환경에서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이고 동양에서 해야 할 일을 이 사람이 한 것입니다. 디지털의 구체적 예가 신라시대의 불국사에 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해답이 가장 먼 옛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탑은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국사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석가탑 그리고 둥글둥글한 다보탑, 이 2개의 탑은 비대칭구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서양은 전부 대칭이고 일본도 대부분 대칭구조입니다. 그런데 신라만은 비대칭적, **both and**했다는 것입니다. 직선이나 곡선이나는 대립적 이항대립을 보스앤드로 한꺼번에 해서 장식적인 것과 간소화한 것, 이 2개를 좌우로 배치한 대웅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계의 불상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불상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 가져간 일본 법륭사에 있는 반가사유불상의 경우는 반은 앉아있고 반은 서 있있는 자세입니다. 반가사유불상 이것은 해탈한 것도 아니고 아직 이승에 있는 것도 아닌 반가사유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의 중간으로서 **both and**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괴테는 이런 보스앤드를 일찍이 알았습니다. 「킹코트리」라는 은행잎이 중국, 한국, 일본을 거쳐 괴테의 집앞까지 들어갔습니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이 슬기로운 지식의 나무, 오리엔탈 트리의 나뭇잎을 보아라. 2개이면서도 하나고, 갈라진 것인가 아니면 갈

라진 것이 합쳐진 것인가? 합쳐진것이 갈라진 것인가? 이것이 동양의 슬기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이다.」 이것이 **either-or**의 이분법밖에 모르던 괴테가 은행잎 하나를 그냥 보지않고 이것을 하나의 오리엔탈 위즈덤의 나뭇잎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양자역학, 양자의 세계를 규명한 물리학자는 데이비드 보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주사위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 우연이 지배하는 물리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자, 전자세계의 질서들이 양자의 세계에 들어오면 파장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솔레진저의 고양이처럼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상한 코르크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뉴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을 하면서 태극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가 노벨상을 타고 귀족이 되어 가문의 문장을 달아야 했는데 문장이 없었습니다. 보아가 중국에 와서 음양 이론의 도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CONTRARIA SUNT COMPLEMENTA**(반대되는 것은 오히려 상보되는 것이다)」. 이 그림은 피셔 아이라고 하는데, 빨간 머리는 검은 색깔로 된 파랑색깔의 공지를 물고 있고, 이 머리는 공지를 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결여된 부분을, 대립되지만 한 가운데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서로 연동하면서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는 태극문양을 자기 가문의 문장으로 삼았고 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먹하고 보자기가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딱딱하고 하나는 펼쳐져 있고, 하나는 입체이고 하나는 평면이고 전부가 반대입니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고 전부 다 다릅니다. 서양은 동전을 던져서 걸이나 안이나 하는 문화지만, 한국과 일본문화에는 가위 바위 보 문화라는 것입니다. 가위가 있기 때문에 밤낮 주먹이 이기고 밤낮 보가 이기는 것이 반은 열리고 반은 닫혀진 가위가 있기 때문에, 순환이 가능해져 누구나 이기거나 누구나 지거나 하는 것이 없는 순환구조가 되는 겁니다. 일본, 중국, 한국에는 서양에서는 없는 이 3가지 산스쿠미 구조를 가진 정신이 이항대립과 삼항순환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산고쿠겐(三國拳), 세 나라가 정치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위 바위 보로 하면 누구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산스쿠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유교, 불교, 도교가 하나의 원을 그리면서 세 나라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만, 가장 센 것은 없다는 것이고 돌고 돈다는 말입니다. 식스 웨이브에서 보면 앞으로의 세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또 한 번 유라시아에서 충돌하면, 과거 징기스칸처럼 유라시아 통합을 일국중심의 통합으로 간다면, 패권주의로 간다면 세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항대립이 아니라 산스쿠미 구조의 순환구조를 가지고 대륙, 해양, 반도라고 하는 3개 구도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순환하는 유일한 지역이 유라시아의 섬나라인 일본이고, 대륙인 중국이고, 그리고 한 가운데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는 작지만 작기 때문에 북경과 동경이 충돌했을 때 서울이 있는 아시아지역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대륙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면 갈 데가 없어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거대한 서양과 동양의 문명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가위 바위 보만큼의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로 우경화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드니까 씨파워와 랜드파워의 싸움으로 단순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세력이 다시 충돌한다면 그 인터페이스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는 대륙쪽에 하나는 해양쪽에 있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긴장을 완화할 수 있고 통일이 되어 전세계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행복의 아니라, 문화적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이 반도라고 하는 극히 작은 접속점 인터페이스에서 디지로그식 보스앤드의 선택지가 가능해져 비대칭구조로서의 순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역을 보더라도 한국은 중국에서 흑자를 내고 일본은 한국에서 흑자를 내고 중국은 일본에서 흑자를 낸다면 문제가 없는 데, 한 나라가 전부 흑자를 낸다면 절대로 무역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하나는, 패러다임 하나를 바꾸면 아름다운 악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쟁이나 긴장을 문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동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죽이는 활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프나 가야금, 고토소리가 됩니다. 일본의 고지키에 나오는 「가라노후네(枯野船)」인데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마지막에 남은 불에 탄 나무를 가지고 고토를 만들어 올리니까 그 소리가 바다로 퍼졌다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주제발표〉

『유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박 상 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박상철입니다. 발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럽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유럽통합이라는 관점은 한국의 대학교수로서가 아닌 유럽대학의 교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며, 유럽통합이 동북아시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대학의 교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럽통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통합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통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럽인들의 통합이라는 인식은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법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포괄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 통합을 유지하고 실행하고 확산시키는 이 메카니즘은 첫째로 유럽위원회이고 나머지는 유럽연합이라는 형태의 국가입니다. 이

중요 부회장님께서 인사말씀 때 총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7월 1일에는 크로아티아가 가입하여 28개국, 내년에는 4개국의 후보국가 중 2개 국가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가입국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유럽의 영토에 대한 유럽위원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보면, 우리 아시아인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유럽의 영토의 범위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통합하고자 하는 시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유럽통합의 역사적 근거는 로마시대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의 신성로마제국의 바톤을 이어받은 국가가 독일이며, 독일의 신성로마제국 부활의 움직임이 실패로 돌아가자 유럽 각 국가에서 식민지 쟁탈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1923년 독일의 백작인 리처드 니콜라우스 폰 쿠데넨 칼데르젤은 전 유럽 선언을 발표하고, 7년 후 프랑스인이 유

유럽연합을 연상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제창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최초로 유럽연합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이며, 영국의 윈스턴 처칠 역시 유럽합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영국 자체는 제외한 이야기이며, 유럽 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리더십을 가지고 나머지 국가를 통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빠진 이유는 영국 자체가 37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영연방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 세계를 분할한다면 앵글로색슨족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며, 20세기에도 이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에서 제창된 것입니다. 정치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통합과정에 격렬하고도 강력하게 참여를 합니다. 그 결과 1949년도에 독일과 프랑스 점경도시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유럽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 유럽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유럽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통합을 구축하고자 했는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황폐해져 갔기 때문에, 사후수습을 위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이 동양과 서양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재건을 위해 만든 법령 등의 핵심 단어는 **Human Rights**입니다. 유럽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가치관이 필요한데, 유럽에서는 **Human Rights**와 **Democracy**가 바로 공동의 가치관입니다. 이 2가지를 기초로 하여 유럽연합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1973년 안보연합체가 탄생하고, 1995년도에 유럽의 안정

을 위해 북미까지 참가하게 되었으며, 북미와 유럽 간 안보조약을 기초로 한 정치·군사적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또한 전체통합뿐만 아니라 지역통합에도 집중했습니다. 유럽을 크게 나누면 4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4곳의 통합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ordic Country** (스칸디나비아)의 경우 1950년대 말부터 스칸디나비아반도 국민이라면 세금만 잘 낸다면 **Nordic Country** 내 5개 국가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통합을 일찍 잘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유럽 **Community**는 52년도에 생기게 되지만, 이는 석탄과 철강의 동맹이라 할 수 있습니다. 52년도 당시에는 유럽경제공동체보다는 자유무역국가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통합과정을 강화시키다 보니, 소위 말하는 **Magnetic Effect**라 할 수 있습니다만, 더 강력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 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동북아시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차대전 초기에 석탄과 철강이 중요했던 이유는 재건을 위해서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는 독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독일의 영토입니다만, 당시에는 프랑스의 영토이기도한 이 지역에서 나는 석탄을 프랑스에서 재건을 위해 사용했는데, 이를 독일에서는 10년간 참으면서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양국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에는 양국 모두 10년에 한 번씩 국가의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럼 한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한국은 그나마 5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일본의 경우는 거의 매 해 바뀌다시피 합니다. 차라리 한일보다는 한중관계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나하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이 미국에 비해 가장 부족했던 에너지를 획득하기 위해 1957년도에 핵에너지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6개의 회원국이 자국의 에너지 획득 등에 관한 결정권을 이 위원회에 넘기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57년도에 로마협정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 때의 유럽통합의 수준은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통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학자 발라사에 따르면 경제통합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의 순이라고 합니다. 1957년 로마협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은 첫 번째 단계였으며, 1967년도에 이르러 관세동맹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세동맹과 함께 정치통합을 위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항도 추진하게 되는데, 하나는 유럽의회와 법원의 건립, 두 번째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창출입니다. 3단계로 1987년에 단일시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제가 독일 유학 중이었습니다만 유럽경제공동체 내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유학생들은 비자를 연장하거나 갱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단일화를 꾀했다는 것, 그 정치력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시장을 도모한 이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독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통합되자 자신의 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정치적

인 통합 역시 가속화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단일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했는가하면 생산요소가 유럽 경제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자본, 노동, 기술이 회원국간에 자유로이 이동하다보니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일시장 구축의 결과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시장 내 인수합병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자본의 유출을 막았으며, 이는 곧 국제자본 선순환의 터로 자리잡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북아시아를 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자본은 미국 재무성 국채로 가거나 영국의 자본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은 동아시아 자본시장에 흡수되지 못하고 세계 자본시장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또한 단일시장을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3가지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먼저 생산요소 이동성을 극대화 시켰고, 두 번째로 경쟁정책을 아주 효율적으로 구축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서 MS사가 벌금을 내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시켜 자원의 배분을 아주 잘 해 놓았습니다. 유럽인의 생활의 질은 미국인의 생활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로우며, 그만큼 유럽인의 삶의 질을 월등하게 높여 놓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되다 보니 유럽 회원국들의 가입 러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영국을 필두로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가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등국가들의 가입이 가속화된 이유에는 경제통합의 Chart가 미국의 NAFTA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NAFTA의 경

우는 **Political Chart**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잘 사는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 등의 상대적 열등국가를 도와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 경제통합의 경우는 **Social Chart**를 기본으로 하여 잘 사는 국가가 가난한 국가를 제도적, 도덕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일수록 유럽연합에 더 가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유럽통합을 통해 독일의 통일이 급속히 이루어졌음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싫어했던 프랑스와 영국의 견제를 경제통합을 통해 극복하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유럽의 경제통합을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이 비행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패전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 역시 비행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일이 워낙 우수한 기술을 지녔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비행기를 생산하고자 독일의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9개국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주주인 비행기 제조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미국의 보잉사와 필적한다는 에어버스 사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연계관계를 한국과 일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이 일본과 연합전선을 펼친다면 이와 같은 훌륭한 비행기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이후에 유럽연합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1993년도에 마하스트릭트 조약을 통해 경제적인 통합을 이룩합니다. 유럽의 화폐연맹을 통해 공동화폐를 구축하게 되는데, 청색의 국가들은 모두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이 화폐통합의 과정이 어떤 메카니즘인가 하면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화폐 **rate**도 유로와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연동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 5~7년간은 약 15%의 변동율을, 그 이후에는 3%대로 연동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로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유로존 회원국들의 부채율이 자국 GDP의 60%가 넘어가면 페널티를 물도록 해 놨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 유럽연합이 창출된 이후에도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회원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장벽, 즉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시장 내에 진입하여 투자를 할 시 여러 정책을 통해 불이익을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 시장을 더 확대하고 새로운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4년도부터는 동유럽 10개국이 참가하게 되면서 북미를 넘는 단일국가로써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시장이 된 이후에 유럽연합에서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은 바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에 유럽연합이 체결한 **FTA**에 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국가도 있으며 최근에 협상 중인 곳은 미국입니다. 이번 4월에 열린 경제인회의에서 한일**FTA**를 주도하신 김종훈 의원,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신 분입니다만, 이 분께서 미국과 유럽이 **FTA**를 체결하면 **WTO**회원국들이 반대를 하여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 캐나다와 거의 협상이 끝나가며 남미와도 체결에 근접해 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을 하나의 정치 통합체로 생각하고 각 국가들이 **FTA**를 체결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체결 등이 지속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뿐

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까지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통합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예로, 유럽인들 중에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 본인을 소개할 때 독일 사람, 프랑스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20~30대는 유럽인데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봐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유럽연합 모든 국가가 동일한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법률이 자국법보다도 우선시 되며 자국법이 유럽연합 법률에 어긋날 경우는 그 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현재까지 약 2,000개의 자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유럽 공동헌법도 20년 이내에 제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이 금방 이뤄지나 하면 그렇게 빨리 이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 통합만 보더라도 현재 화폐동맹은 맺어졌으나 아직 재정동맹까지는 맺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PIGS의 재정위기 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은 유럽연합의 현재와 향후 과제들을 보면, 앞으로 시간만 더 필요할 뿐이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유럽연합 관련 소식의 source는 영어입니다. 대부분이 뉴욕타임스 등의 미국 신문을 읽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유럽연합을 평가하고 계십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유럽연합의 핵심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양국의 정치지도자가 간다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통합이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먼저 동아시아는 공동의 가치관(전 인류적인 가치관)을 창출하지 못했음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통합이라고 해서 경제만 통합한다면 사상누각입니다. 유럽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일정한 통합이 된 상황에서 경제적 통합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경제적 통합만 진행한다면 위기상황에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간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이 점이 유럽과 아시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국가간의 침략 및 전쟁이라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그것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빈번히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측면이 아시아와는 너무나도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과연 동북아시아는 자국의 권한을 투명한 협의체에 넘겨줄 수 있는가하는 점이며, 이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에너지 관련 협력을 더 해야 합니다. 제가 에너지 관련 강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시아 프리미엄’입니다. 미국에서 \$1하는 석유가격이 유럽으로 가면 \$2가 되고, 또 아시아로 넘어오면 \$4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 나지도 않는 동아시아가 에너지 구입 관련 협의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럽이 처음 통합을 시도할 때도 석탄과 자원에 대한 협의체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으므로, 우리 아시아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시아에서 경제적 통합을 진행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통합 역시 함께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을 유럽연합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국가간 통합이라는 것은 지도자들간에 명확한 비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지도자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세계에서의 political power는 최고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58개국을 여행했는데 한국인만큼 미국을 좋아하는 국가도 없습니다. 미국인

들이 유럽에 가면 매우 공손해집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시골집에서 으시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력은 유럽이 가져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은 단일규모로써는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 인생에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 끈 ☆ ♫

1.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마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은 정 맞기 쉽다.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라.

2. 발끈

오기 있는 사람이 되라.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라!

3. 화끈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라.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라!

4.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아라.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으니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아라!

5. 따끈

따뜻한 사람이 되라.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라!

끈끈한 만남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한번 인맥은 영원한 인맥으로 만나려는 끈끈한 사람들이 아쉬운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끈은 영원한 끈이어야 합니다!

일본우수퇴직기술자 유치 성과 사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협회 자매기관) 일본비즈니스협력센터의 기술지원팀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일본 고급 기술인력을 발굴, 국내 산업현장에서 집중적인 기술지도 및 자문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그 구체적인 성과 사례를 소개한 글입니다.

40년 장인 다나카 덕에 불량 40% 뚝

-세동 파워엠엔씨-

한경·한일재단 기획 '일본 퇴직기술자 유치'

자동차도어벨트 생산 세동 등 日퇴직기술자 고용 시너지

부산시 기장군 외곽에 있는 자동차 도어벨트 생산업체 세동은 도어벨트 소재인 열가소성탄성체(TPE)에 나일론 파일(털)을 심는 과정에서 생겼던 불량률을 불과 8개월 만에 평균 40% 이상 줄이는 데 최근 성공했다. 섭씨 600도에서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오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와 달리 TPE는 고무와 PVC의 중간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이 소재를 쓰고 있다.

지난 3일 이 회사 공장에서 만난 이세호 세동 기술상무는 “불량률뿐만 아니라 제품 라인 교체시간도 평균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시간당 도어벨트 생산량이 평균 5% 이상 늘었다”며 흐뭇해했다.

세동이 이런 성과를 내는 데는 다나카 기요시 기술고문(60)의 도움이 컸다. 그는 세동과

30년 동안 기술제휴를 해온 동해흥업이라는 일본 자동차 도어벨트 전문회사에서 35년간 일했던 소재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8월 세동에 합류하자마자 먼저 나일론 파일 생산업체를 찾아가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설비 설계를 처음 단계에서부터 재검토했다. 전압과 설비 사양을 조정한 끝에 지난 3월 불량률을 개선한 제품을 만들었다.

윤정상 세동 사장은 “전체 도어벨트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TPE 소재 비중을 2017년

에는 60%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다나카 고문과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퇴직기술자를 고용해 성과를 거두는 중소기업들은 부품과 소재 분야에 많다. 일본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은 퇴직기술자와 국

내 중소기업이 협력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의 기술 도입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부터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이즈음 대거 은퇴한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일본 퇴직기술자 유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한국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기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제철 진단설비 제조업체 파워엠엔씨도 신일본제철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제강기술자인 이치카와 가오루 기

술고문을 영입, 고속으로 장시간 회전하는 특수 슬립링을 만들었다. 제철소 압연공장에서 철판의 평판도를 재는 셰이프 메터라는 기계에 들어가는 특수 부품인 슬립링을 개발할 수 있었던 데는 신일본제철에서 직접 설비개발을 주도한 이치카와 고문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전재영 파워엠엔씨 사장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봤던 특수 슬립링 개발기간이 이치카와 고문 덕분에 단축됐다”며 “현재 95% 완성도를 보이는 시제품을 이달 말께 포스코 압연공장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재영 파워엠엔씨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부산시 동래구 본사 기술연구소에서 일본 퇴직기술자와 협력해 만든 철판 평판도 측정기가셰이프미터 롤' 작동 상황을 직원들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 / 부산=은정진 기자

日 퇴직기술로 3조원 유성감속기 시장 노린다

-삼양감속기-

한경·한일재단 기획 '일본 퇴직기술자 유치'

인천 삼양감속기,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유성감속기 특화 계획”

문성주 대표 “일본 선진 기술 꾸준히 협력할 것”



감속기 생산·판매업체 삼양감속기는 최근 고부가가치 제품인 유성감속기의 생산 매뉴얼을 개발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해 1월부터 일본 퇴직 기술자 나카니시 요시오씨(74)를 영입하면서다.

지난 5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삼양감속기. 1967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자동화라인, 공작기계 등에 쓰이는 국내 산업용 감속기(기어드모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모터의 회전수를 조정해 힘을 증대시키는 부품인 감속기를 현대엘리베이터, 포항제철, 현대제철 등에 공급해 지난해 7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삼양감속기는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 다진

입지에 만족하지 않았다. 일반 감속기에 비해 응용범위가 넓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성감속기를 특화시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하려는 것.

문성주 삼양감속기 대표이사는 “회전 정밀도가 뛰어난 유성감속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에 전반적으로 사용된다”며 “세계적으로 3조1000억원의 시장 규모지만 해외 업체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양감속기는 2008년부터 유성감속기 개발을 시작해 2011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본 스미토모, 독일 SEW 등 경쟁한 경쟁자들과는 기술적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인 퇴직 기술자인 요시오씨에게 기술을 전수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요시오씨는 삼양감속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성감속기의 설계, 생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유성감속기 전문업체 오광정밀의 대표이사였던 그는 40여년간 엔지니어부터 영업과장, 경영자 등을 두루 거쳤다.

이강진 삼양감속기 제품개발부장은 “감속기 제조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마모 정도를 알 정도로 베테랑 기술자였다”며 “그가



일본 퇴직 기술자 나카니시 요시오씨

설계부터 가공,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생산과정을 매뉴얼화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요시오씨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제품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부장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현장에서

부딪힌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며 “개발 중인 제품들의 설계 도면을 보여주면 일본 기술자가 제작상 예상되는 문제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삼양감속기는 유성감속기와 함께 태양광 발전기, 풍력 발전기용 정밀부품 등 친환경제품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선진 기술을 가진 일본 기술자와 꾸준한 협력이 요구된다.

문성주 대표는 “고급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 일본 퇴직기술자의 조언은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문 제도 등을 통해 좀 더 장기적으로 협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요즘 일본에선 삼성과 한국경제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다. 주일 한국대사관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이나 회사 정보를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스마트폰, LED TV 등 IT(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앞서가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한일간 경제 격차도 크게 줄었다.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를 정점으로 2012년 250억 달러로 감소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직접투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 공동으로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진행한 '제3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단'에 동행, 한일 경제협력 현장을 둘러봤다. <한경닷컴 편집자 주>

[한일 신 경제협력 시대 ①]

한일 근로자, 인도네시아 열대림서 한솔밥 먹는 까닭은?

〈적도 슬라웨시섬에서 꽃핀 한일 공동 자원개발〉



◆ 동기세노로 LNG프로젝트 현장 둘러 보니

지난 21일 낮 인도네시아 중부 슬라웨시섬 루와크공항에 내리자 숨이 막히고 어질어질했다. 허름한 공항대합실에 걸린 온도계는 섭씨 33도를 가리켰다. 적도지방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전날 아침 인천공항을 출발해 7시간 만

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21일 오전 자카르타 할림공항에서 전세기를 탔다. 약 3시간을 비행한 뒤 루와크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건설현장은 에메랄드빛 바다와 어울려 너무 아름다웠다.

공항에서 50km 떨어진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 공사 현장(사진 위)까진 버스로 한 시간 반을 더 달려야 했다. 꼬불꼬불한 도로 옆 해안가에선 별거벗은 몸으로 고기를 잡는 원주민들이 보였다. 야생소들이 떼를 지어 도로위로 출몰했다. 서울을 출발한 지 하루 반만인 오후 1시께 경비가 삼엄한 현장 정문을 통과했다.

동기세노로 건설공사 현장에선 인도네시아인, 일본인, 한국인이 뒤섞여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 11명(사무직 2명, 기술직 9명)이 폭염 속에 구슬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날 한일 기업인 5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대상으로 한 설명도 영어, 일어, 한국어가 함께 사용됐다.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조코 율보 사장은 환영사에서 “동기세노로 프로젝트는 한, 일, 인도네시아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최초의 LNG 채굴사업으로 3국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율보 사장은 “동기 프로젝트는 아시아의 천연자원을 아시아인의 자본과 기술로 직접 개발해 아시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의 천연자원은 아시아인을 위해



적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의 자원보고다. 원유, LNG (액화천연가스), 무연탄, 목재 등이 풍부하다. 슬라웨시는 인도네시아 5개 주요 섬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슬라웨시섬에서 진행중인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는 한일 기업이 동남아시아에서 공동 개발하는 첫번째 LNG 시추사업. 양국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LNG 가스 수입국. 2010년 말 기준 일본은 연간 7,001만, 우리나라는 3,260만의 LNG 가스를 수입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양국은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해왔다.

한일 기업인 교류회에 참석한 가토리 요시노리 주인도네시아 일본대사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협력해 인도네시아 자원 개발에 나선 것은 양국간 경제협력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면서 “해외 천연자원 확보는 물론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일 협력하니 공기 빠르고 비용절감 효과

“동기세노로 LNG프로젝트는 일본의 강점인 파이낸스와 한국이 강한 건설기술이 접목된 가장 좋은 협력사업 모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앞으로 제3국에서 공동 자원개발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경호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상무관은 “동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향후 광산, 삼림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기세노로 LNG프로젝트는 3국 기업간 공동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은 일본 미쓰비시상사가 주도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8억 200만 달러 규모. 한국가스공사는 2억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LNG를 생산하는 동기세노로LNG(DSLNG)의 지분은 미쓰비시상사 44.925%, 한국가스공사 14.975%,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2011년 초 설계작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은 62% 수준. 2014년 하반기 시운전을 마치고 2015년 초부터 LNG와 석유 생산에 들어간다.

한국가스공사는 생산 개시 연도부터 13년 동안 매년 30만톤의 LNG를 수입하게 된다. 동기세노로 가스전은 2015년부터 연간 200만톤 가량의 LNG를 쏟아낼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서 만난 한일 공사 현장 관계자들 모두 양국의 기술과 근로자들의 능력과 열의에 만족해 했다. 공사 시작 후 2년이 지났으나 아직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다.

한국가스공사의 손병철 LNG사업운영팀장은 “일본인 특유의 꼼꼼함과 한국인의 강력한 추진력이 조화를 이뤄 공사 진척 속도가 예정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양국 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쉬는날 삼겹살 파티로 우의를 다지는 등 공동 업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두시간 가량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나니 옷에서 땀이 줄줄 흘러나왔다. 열대림 속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양국의 근로자들을 보면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급성장하는 아세안 지역 곳곳에서 자원개발과 비즈니스를 펼치는 양국 기업들로부터 ‘한일 경제공동체’ 희망의 싹을 찾았다. 

[한일 新 경제협력 시대 ②]

아세안 시장에서 길을 찾다



2011년 대홍수 피해를 완전 극복하고 정상화된 산큐태국의 물류창고 모습.

〈한국, 일본 기업의 태국시장 공략 노하우 배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지만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선 행사장을 빼곤 호텔밖을 3일 동안 한번도 걸어나가지 않았다. 테러와 납치 위협이 있어 외국인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는 현지 주재원들의 충고 때문이었다. 반면 방콕 거리는 밝고 곳곳에 외국인들로 넘쳐났다.

두 도시에서 공통점도 찾았다. 일본 자동차, 일본계 은행, 일본식 식당 등이 많이 눈에 띄었다. 태국 스완나폼 국제공항에서 방

콕 시내로 들어가면서 보니 승용차 10대 중 8, 9대가 일제였다. 도로 옆 대형 광고판도 삼성 스마트폰을 빼면 일본 제품들이 점령했다.

제3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단에 동행한 서형원 공사(주일본대사관)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일간 경제력 격차가 느껴진다”며 “한국보다 앞서 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일본 제품, 태국 소비시장 석권

태국경제는 2011년 10월 대홍수 피해에서 벗어났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작년 3분기 3.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등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자동차 제조대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대를 돌파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한국 독일 등의 경쟁 회사보다 시장 진출이 빨랐던 데다 부품공장을 동남아 인근에 집중시킨 게 주효했다. 반면 동남아 주요 6개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5% 안팎에 불과하다.(2012년 기준)

일본차가 동남아에서 선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우선 조기 진출이다.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관심을 두지 않던 1960년대부터 동남아 시장에 판매망을 구축했다. 1962년부터 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도요타는 1964년과 1970년 태국과 인도네시아, 1980년대엔 말레이시아에 현지 공장을 세웠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자동차 관련 부품공장이 집적돼 있는 것도 강점이다. 부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운 구조를 갖췄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스케가와 세이야 방콕사무소장은 “대홍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일본 제조업체들이 아세안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곳”이라고 말했다.

◆ 아세안시장 전체를 보고 투자해야

1월22일 저녁 방콕 시내 콘래드호텔에선 이색적인 모임이 열렸다. 한국과 일본 기업간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회였다. 이와마 키미노리 주태국일본대사관 경제공사, 서형원 주일본한국대사관 공사,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 등 양국의 민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해외 자원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대성산업의 정광우 사장 등 우리나라의 민간기업 대표들도 참여해 우의를 다졌다.

“태국에 공사로 부임한 이후 오늘처럼 신선한 모임은 처음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간 협력이 태국에서 잘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마 키미노리 경제공사는 “태국 경제가 급성장중이어서 한일 기업이 손잡으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다”며 “양국이 연대해 아세안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마 공사는 “제조기술력이 뛰어난 한일이 태국의 산업기술인력 육성 기관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태국시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아세안 국가를 선택했다. 아베 총리는 1월 중순 태국을 방문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일본인상공회의소의 후루사와 미노루 회장은 “태국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열의가 매우 뜨겁다”면서 “태국만을 겨냥하지 말고 아세안 시장 전체를 감안한 투자와 생산기지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본 현지기업, 100년 대홍수도 대비

“사상 최악인 2011년 대홍수에서 일본 현지 업체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됐는지를 보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홍수같은 천재지변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는 “글로벌 생산시대를 맞아 어느 한곳의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 본사까지 큰 타격을 입는다”면서 “아세안 10개국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생산망을 구축해야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기업인으로 구성된 ‘제3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단’은 24일 방콕 외곽의 아유타야공단에 위치한 ‘산큐태국’(사진 왼쪽)과 ‘태국 도레이’ 현지공장을 둘러봤다. 이들 공장은 2011년 10월 초 발생한 대홍수로 완전히 물에 잠겨 엄청난 피해를 본 곳이다.

미쓰비시상사 계열 물류회사인 시게사와 타카야키 산큐태국 사장은 “홍수로 주변 공업단지가 물에 잠겨 태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 마비됐었다”고 소개한 뒤 “철저한 예방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 복구작업을 실시해 공장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보관중인 물품은 보험회사를 통해 전액 보상을 받았다.

태국도레이 공장은 홍수를 겪은 뒤 완전히 달라졌다. 대홍수 당시 공장은 물론 사무실도 사람 키만큼 물이 차 모두 대피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회사 대표는 “물이 들어왔을 때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비상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1992년 설립된 태국도레이 공장은 대홍수 피해복구 과정에서 공장을 완전히 개조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공장을 한층 더 올렸다. 평소 비워두지만 홍수로 1층에 물이 찰 경우 생산장비, 원자재, 서류 등을 사전 지정된 공간에 옮기도록 매뉴얼을 짰다. 100년에 한번 올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JETRO의 스케가와 세이야 태국지사장은 “인력부족, 인건비 상승은 물론 홍수 등 천재지변도 태국 투자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라면서 “대홍수를 1년 만에 극복하고 정상화된 일본 기업들의 사례가 한국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제3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단'을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파견했다. 50여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공장 방문과 주재원들과의 교류회 등을 통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찾아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사진 아래 오른쪽)과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는 현지 대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전망 등을 논의했다. 40년 이상 학계와 업계에서 활약해온 두 전문가는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로 한일 양국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리 =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한일 新 경제협력 시대 ③]

한일 손잡고 21세기 글로벌 경제 이끈다

-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대규모로 '제3국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조사단'을 동남아에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를 둘러본 소감은.

▶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 = 두 나라 근로자들이 열대의 폭염 속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한일 경제협력 확대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양국이 협심해 젊은 인재들을 공동 육성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현장에 파견해 경험을 쌓게 하는 게 필요하다.

▶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한일경제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인도네시아에서 LNG 채굴사업이 계획보다 순조롭게 진행돼 만족스럽다. 두 나라의 향후 자원개발 사업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동기세노로 LNG 프로젝트 사업 의미는.

▶ 고레나가 전무 = 단순한 자원개발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공사현장 인근 마

을의 도로 및 주택 개량 등에 힘을 쏟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함께 조화를 이룬 사업이어서 현지인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 같다.

▶ 이 부회장 = 동기세노로 프로젝트는 순수 아시아 자본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중인 원유 시추사업은 대부분 엑슨모빌, BP 등 서방 메이저들이 주도하고 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 자본으로 아시아 자원 개발에 나섰다라는 점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원 개발 후 한일 기업을 장기 수요처로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 양국 기업이 제3국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앞으로 공동 진출 가능한 분야는.

▶ 고레나가 전무 = 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프로젝트는 2015년 채굴 개시연도부터 13년 뒤 끝난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마다카스

카르, 모로코 등지에서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석탄광 개발과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 개발 수요가 많은 아프리카, 남미 등에도 사업 기회가 많다.

– 한일 경제 협력 전망은.

▶ 이 부회장 = LNG 공사 현장에서 양국 기업과 근로자간 협력이 매우 잘 되고 있다. 공정도 목표보다 빠르지만 공사 현장이 깨끗하고 안전사고도 전혀 없는 등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3국에서 진행되는 향후 사업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인 만큼 양국이 잘 협력해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 고레나가 전무 = 동기세노로 프로젝트는 ‘아시아의 자원을 아시아 자본으로 개발해 아시아인을 위해 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분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

– 아베정권 출범 후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 고레나가 전무 = 아베 총리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어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올해 2%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일본경제 회복세가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이 부회장 = 아베 정권의 양적완화 정책만으론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 한일이 거시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 대담

경제 정책에도 긴밀히 협조해 ‘윈-윈’하는 방향으로 공조해야 한다. 돈을 풀어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지 말고, 늘어난 통화를 해외자원 개발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년 넘게 진척이 없다.

▶ 이 부회장 = 양국 정부나 경제인 모두 한일FTA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두 나라에서 새 정권이 출범하는 만큼 FTA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올 10월 공동으로 양국의 민·관·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대규모 한일FTA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에서 여론의 관심을 높여 협상 타결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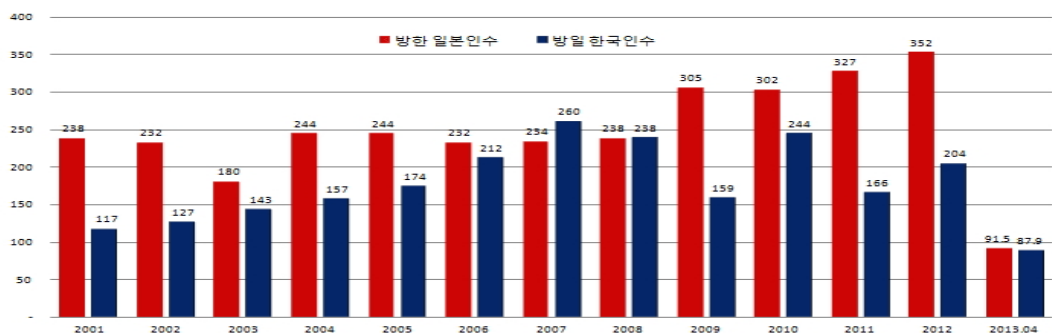
▶ 고레나가 전무 = 정부간 협상은 10년째 진전이 없지만 민간레벨에선 양국간 경제 협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일본 정부내에서도 외무성과 경제성이 특히 적극적이다.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국간 FTA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교역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수출입 실적(01~13.05)(단위 : 억불)



구 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2001	1,504	1,411	2,915	165	266	431	11.0%	18.9%	-101
2002	1,625	1,521	3,146	151	299	450	9.3%	19.6%	-147
2003	1,938	1,788	3,726	173	363	536	8.9%	20.3%	-190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7
2010	4,664	4,252	8,916	282	643	925	6.4%	15.1%	-361
2011	5,552	5,244	10,796	397	683	1,080	7.2%	13.0%	-286
2012	5,479	5,196	10,675	388	644	1,032	7.1%	12.4%	-256
2013.05	2,300	2,159	4,459	143	258	401	6.2%	11.9%	-115

한일 인적교류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출입국 실적(01~13.04)(단위 : 만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04
방한 일본인수	237.7	232.1	180.3	244.3	244.0	232.0	221.6	235.8	303.2	300.4	327.0	351.8	91.5
방일 한국인수	117.0	126.6	142.7	156.9	173.9	211.7	260.1	238.3	158.7	241.5	165.8	204.4	87.9
계	354.7	358.7	323.0	401.2	417.9	443.7	481.7	474.1	461.9	541.9	492.8	556.2	179.4

(출처) 한국무역협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일본정부관광국(JNTO)

한일경제협회 신규가입 회원사

■ 한국OSG(주)

정태일 대표이사 회장

○주 소 : 대구 달서구 호산동 357-53번지
 ○U R L : www.osg.co.kr
 ○종업원수 : 305명
 ○업 종 : 철강, 금속
 ○생 산 품 : 탭, 엔드밀, 드릴 등

■ (주)에스엠코리아

김상일 대표이사 사장

○주 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6-3
 동호빌딩 2층
 ○U R L : sm-korea.com
 ○종업원수 : 45명
 ○업 종 : 기계
 ○생 산 품 : 특수목적용 산업기계
 (고압세척기, NC로터리테이블 등)

■ 대상중공업(주)

문제균 대표이사

○주 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11-2
 ○U R L : mdshi.com
 ○종업원수 : 45명
 ○업 종 : 운수장비
 ○생 산 품 : 전박부분구성품(선박BLOCK)

■ 유원엔지니어링(주)

박성규 대표이사

○주 소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길 52,
 삼환디지털벤처타워 303호
 ○U R L : www.youone.co.kr
 ○종업원수 : 38명
 ○업 종 : 건설업
 ○생 산 품 : 사이포닉우배수시스템, VAV변풍량
 디퓨저 등

■ 법무법인 한신

이웅 변호사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U R L : www.hansinlaw.com
 ○종업원수 : 33명
 ○업 종 : 법무, 회계

■ (주)필립메세

임상열 대표

○주 소 :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Y-9169)
 ○U R L : pillipmesse.com
 ○종업원수 : 30명
 ○업 종 : 기타서비스업(전시 및 이벤트 행사 운영)

■ 원이세라믹(주)

이상우 대표이사

○주 소 : 경기 고양시 풍동 숲속 마을 709동1702
 호
 ○종업원수 : 10명
 ○업 종 : 화학, 비금속광물
 ○생 산 품 : 활성탄, 대기수질필터, 세라믹필터 등

■ (주)바이텍

박완혁 최고고문

○주 소 : 東京都品川区東品川 3-6-5
 ○U R L : www.vitec.co.jp
 ○종업원수 : 300명
 ○업 종 : 전기전자
 ○생 산 품 : 반도체, LED조명, 밧대리 등

■ (주)뉴에너지코리아

신진우 대표이사

○주 소 : 경기 과천시 과천동 376-15 201호
 ○종업원수 :
 ○업 종 : 전기전자
 ○생 산 품 : 에너지 절감장치

회원가입안내

1. 개요

한일경제협회(www.kje.or.kr)는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교류 등 민간에 의한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회원 자격

우리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와 협조 및 친선을 위하여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및 단체

3. 회원가입 및 회비

- ▣ 회원가입 :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 회비구분

구 분	전년도 매출액기준	입회비	연회비
일반회원사	50억 이상	10만원	80만원
	50억 미만	10만원	20만원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24-04-104432 한일경제협회

4. 중점사업

- 한일경제인회의 사업(연 1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연 1회)
-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한·큐슈, 한·호쿠리쿠, 환황해경제교류회의)
- 한일청소년(고교생교류캠프)교류 사업
- 기타 한일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한일통상포럼, 업종별 교류회 등)
- 회원사 간담회(주한일본대사초청간담회, SJC와의 간담회, 친선교류활동 등)

5. 회원사 특전

- 협회주최 및 자매기관(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연구조사, 보고서 제공
- 협회 소식지 및 일본정보[지식리포트] 제공
- 협회 보유자료 열람
- 일본기업 소개·비즈니스 정보·신기술동향 등의 일본기업정보 제공(수시)
-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일본연수 사업 참여

6. 문의처

135-8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번지 한일재단B/D 4층

김정호 부장(TEL: 02-3014-9886 E-mail : jhkim@kje.or.kr FAX : 02-3014-9899)

회원가입신청서

회사(기관)명			
대 표 자	(한글)	(한문)	
	(직위)	(생년월일)	년 월 일 (음/양)
주 소	㉠		
T E L	(대표)	(비서실)	
F A X	(대표)	(비서실)	
E - mail	(대표)	(비서실)	
U R L	http://	창 립 일	년 월 일
자산 총액	억원	자 본 금	억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주생산물			
업 종 ※ 해당되는 업종 앞에 하나만 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 광업	기계	운수창고	
섬유, 의복	전기전자	통신업	
종이, 목재, 출판	전기장비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화학	의료정밀	지주회사	
의약품	운수장비	법무, 회계	
고무, 플라스틱	전기가스	기타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건설업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	
철강, 금속	유통업	그 외 업종()	

〈담당 관리부서〉

부 서 명		TEL	
담 당 자	(성명)	FAX	
	(직위)	E-mail	

본인은 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회사명(단체명) :
대표자 :

㉠

(사)한 일 경 제 협 회 귀중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E-mail (jhkim@kje.or.kr) 또는 FAX(02-3014-989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5-82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18-4(논현동)